초록번호 07-3

제 목	국 문	한국인, 연변조선족 및 한족의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과 유병률, 그리고 그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영 문	A comparative study on mortality,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Korean, Korean-chinese and Chines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정순[1], 문용[1], 류규형[2], 장경호[3]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3) 연변의학원 과학기술처
	영 문	Joung Soon Kim[1], Yong Wen[1], Kyu Hyung Ryu[2], QingGao Zhang[3] *1) School of Public Health, SNU, 2)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3) Scientific research office, Medical college, Yanbian University*

분 야	역학	발 표 자	김정순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인, 한국인과 유전적 소인인 동일하나 환경적 요인이 다른 중국내 조선족, 그리고 조선족과 환경적 요인은 동일하나 유전적 소인이 다른 한족등 3개 집단간의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 유병률을 비교하고 그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각 집단간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유발한 관련요인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됨은 물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1) 세집단의 사망자료를 토대로 한국인과 중국거주 조선족 및 한족의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파악, 비교하고, 2) 각 집단의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므로써 환경요인이나 유전소인이 이들 질병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색출하며, 3) 위의 1), 2)의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심혈관질환 예방전략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연구 방법

1) 사망자료수집

-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사망자료는 한국인의 경우 1993년 사망원인통계 연보를, 조선족과 한족의 경우는 연변자치주에서 1993년 1월 1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신고된 사망등기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설문지 조사 (심혈관계 질환 관련설문)

- 조선족과 한족은 길림성 연변자치주내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경우는 한국내 1개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심혈관계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대상집

단 중 30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였고, 설문내용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정보, 흡연, 음주, 식이조사, 심장질환에 대한 Rose Questionnaire를 포함하였다.

3)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및 위험요인 조사

체중, 신장, 적혈구 용적치, 혈압, 공복혈당치 측정,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채혈하여 혈청지질과 지질의 성분구성을 분석하며, 전문의의 환자 진찰를 통해 혈압 측정치와 심전도 소견을 참고로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한다.

4) 결과 분석

- 각 측정치들의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대표치의 산출과 분석, 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한 측정질환의 유병률과 이들의 역학적 특성 그리고 이들 측정치의 특정질병과의 연관성을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1) 각 집단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시 조선족 및 한족의 경우 30~40대의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 높았으며, 교육수준도 한국인에 비해 더 높았고, 결혼상태의 경우 별거인 경우가 한국인에서 두지역에서보다 높았다. 직업은 세지역 모두 주로 농업이 주를 이루었다.

2)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의 비교시 남녀 모두에서 심혁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한족, 조선족, 한국인의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인은 사망순위 10위내에 허혈성 심질환과 심부전 정도가 포함되는 반면, 조선족과 한족은 허혈성 심질환, 급만성 폐성 심질환, 만성 류마티성 심질환이 포함되었고, 특히 한족 여성의 경우는 심혈관계의 선천성 기형이 9위로 등록되었다.

3) 혈압, 남성에서의 HDL 농도와 심전도를 제외한, 혈당, BMI, 콜레스테롤, 트리글라이세라이드 측정치의 이상률은 조선족에 비해 한국인에서 더 높았다.

4) 설문조사에 의한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은 한족, 조선족, 한국인의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심혈관질환과 연관된 위험요인으로는 연령과 BMI 요인이 있었으며, 고혈압증의 경우는 고혈압의 가족력과 뇌혈관질환은 음주와 연관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이민집단에 대한 연구는 상병양상의 차이를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과 그 이민집단인 조선족, 그리고 이와 동일한 환경에 살면서 유전적 요인은 다른 한족의 3개 집단간의 상병양상에 대한 비교는 질병발생의 원인이나 기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만성질환의 하나인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 유병률 그리고 그 위험요인의 세 개 집단간 비교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것이며, 한민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이민연구의 효시가 될것이다.